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를 읽어낸다 — 두 발문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하시모토 유(橋本雄)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學)

번역 : 홍성민(洪性珉)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종합인문과학연구소

시작하며

가마쿠라(鎌倉) 후기에 일어난 대 몽골전쟁[蒙古襲來]에 관한 사료의 수집은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가한 히고구니(肥後國, 현재의 구마모토 현) 고케닌(御家人)인 다케자키 스에나가(竹崎季長)가 그렸다고 하는 통칭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궁내청宮內廳 산노마루三の丸 쇼조칸尙藏館 소장)는 두 차례의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보기 드문 역사자료·회화자료로서 유명하다. 대 몽골전쟁의 기본사료의 하나로서 이그림[繪卷]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이미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다만 회화작품이 언제나 그렇듯이 박력있는 이 그림도 처음부터 실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밑그림·본 뜬 종이[型紙]의 이용은 비밀비재하다). 이러한 점을 분별하여 구조주의적으로 본 작품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은 에도(江戸) 시대 간세이(寛政) 연간(19세기 초두)의 수선·두루마기 형태의 완성[成卷]에 의한다. 또한 이 그림에는 착간(錯簡)과 개변이 많아서, 간세이 연간의 수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보필(補筆)과 개작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그 가장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예가 아래에 표기한 장면일 것이다. 3명의 몽고병에 맞서서 피를 흘리는 말 위의 다케자키 스에나가(竹崎季長)가 그것이다. 그의 머리 위 주변에는 ‘철포(鐵炮)’(『金史』에 보이는 ‘진천뢰震天雷’일까)가 작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왼쪽에는 일본 병사가 쓴 화살을 피하려고 갈팡질팡거리는 몽고병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이 몽고병사 3명이 종이를 연결하는 방법의 분석과 적외선 사진에 의해 그림의 원본이 작성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후에 가필된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사토 테쓰타로佐藤鉄太郎 씨·오타 아야太田彩 씨). 또한 자주 주목받는 ‘철포’ 자체도 그림을 그린 시기는 둘째로 치고서라도 후세에 그려넣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사토 테쓰타로 씨). ‘철포’를 그린 시기는 차치하고 이 장면은 다른 스토리에 있던 부분을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해 종이의 순서를 바꾸어서 성립된 것이다.

◆ 図削除

* 최근에 핫토리 히데오(服部英雄) 씨는 3명의 몽고병사가 이 그림과 동시기에 그려졌다고 주장하였다. 그 필치의 정교함은 공방(工房)의 주인이 최대의 역사사건을 혼신의 힘으로 그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또 종이 이음 부분에 걸쳐서(다소 후대에, 혹은 다른 필적으로)그린 것은 대개 그림[繪卷]에서는 종이 한 장마다 그림을 그리고, 각 그림을 이은 다음에 각 종이를 걸쳐서 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 뿐만 아니라 많은 논자들이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만, 3명의 몽고병사의 그림 속 모습은 주위의 몽고병사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다. 이론도 있겠지만, 동일한 공방에서 그렸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림은 보통 몇 장의 종이를 이은 다음에 설명문과 그림을 적거나 그려 넣는다(이는 실제로 그림 실물을 직접 보면 알 수 있다. — 덧붙여 보고자는 2017년 5월에

산토리미술관의 『회권 매니어 열전(繪卷 マニエ 列傳)』 전시회에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였는데, 예외없이 먼저 종이를 이어붙이고 나서 문장과 그림을 넣었음을 확인하였다. 종이를 붙이고 나서 다른 필치로 그림이 그려졌어도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논법은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장면을 오타 아야 씨와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씨의 견해를 바탕으로 ‘복원’해 보면 다음과 같다(‘철포’는 일단 남겨놓았지만, 제작 당초에는 그려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즉 도망가려고 갈팡질팡거리는 몽고병사들을,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함께 종군한 姉兄인 미쓰이 스케나가(三井資長) —스에나가는 오히려 사실상 스케나가의 부하였나?(이시이 스스무石井進 설) —를 필두로, 말을 타고 뒤쫓아가는 구도가 본래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図削除(이상, 규슈 국립박물관 개관기념특별전 팸플릿에서 轉載)

이처럼 본 작품의 현재 모습에서 역사적 사실을 소박하게 읽어내기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 또한 이 그림의 물리적인 부자연스러움도 일일이 지적할 여유는 없지만,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학들에 의하면, 종이의 종류와 번짐방지의 유무 등도 일관되지 않는다. 설명문과 회화표현의 붓놀림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수 많은 지적이 있다. 요컨대 본 그림은 여러가지 의문점이 담긴 회화사료인 것이다. 게다가 본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는 차고 넘쳐서 앞으로도 주도면밀한 사료비판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본 작품을 역사자료로서 충분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외견상의 회화·필적의 분석에서 한발짝 물러나겠다. 또한 근년의 대몽골전쟁 연구의 진전—특히 몽골제국사 연구와 다카시마(鷹島)(나가사키 현 마쓰라松浦 시)에 침몰한 몽골 군선에 관한 수중고고학의 진전—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와 논저에 양보하고, 이 그림이 현재 상태가 되기까지의 전제조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그림의 전체적인 이해의 열쇠가 되는 ‘발문跋文[奥書]’에 논점을 맞추어 그 역사적 성격을 가려내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몽고습래회사」에는 보통 하나밖에 없는 ‘발문’(권말에 있는 제작의도를 적은 기록)이 두 개나 존재하고, 이것이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의 제목에 비해서 양두구육인 느낌은 있지만 우선은 발문 A·B의 분석에 주력해서 본 보고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차후의 연구의 초석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선술하였듯이 이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사료비판을 빼놓을 수 없다. 대전제로서 발주자의 의도와 화가의 세계관에 다가가기까지, 현 상태의 작품에 씌워진 베일을 차례대로 벗겨내는 작업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본 보고에서 모든 시도를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문제 설정을 한정할 이유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뒤에야 대몽골전쟁[蒙古襲來]의 실상, 실태를 역으로 조명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고, 또 대몽골전쟁의 표상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세계의 범 아시아사로 넓혀져 간다면, 이는 생각지 못한 기쁨이라 할 수 있겠다.

1. 「몽고습래회사」를 읽어내기 위해서

(1) 그림의 개요 설명

우선 몽고습래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두겠다. 본 보고의 제목에서는 알기 쉽도록

편의적으로 통칭인 「몽고습래회사」로 표기하였지만, 본 작품의 주인공이 그의 활약을 그린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그림[繪卷]」, 곧 「다케자키 스에나가 회권竹崎季長繪卷」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유력한데, 보고자도 실제로는 후자에 가까운 입장이다. 다만 일단 결론을 유보해 두고자 한다.

현재 궁내청 산노마루 쇼조칸에 소장된 원본은 현재, 상하(전후) 2 권으로 구성된다. 주인공으로서 제작의뢰자(발주자)라고 생각되는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집안에서 유출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구마모토(熊本)의 오야노(大矢野) 가문의 소유로 돌아갔다. 그리고 1825 년에 구마모토 번주(藩主) 호소카와(細川) 가문에서 보관되다가 에도로 전해져서 많은 가문[武家]이 이를 알게 되었다(예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의 열람 · 모사→「악옹본(樂翁本)」제작). 그 뒤 근대에 들어와서 1890 년(메이지 23 년), 임시전국보물조사[取調]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원본 소유자인 오야노 가문으로부터 본 작품을 구입해서 궁내청에 수장되었다. 현재, 황실의 보물로 일컬어지지만, 실제로는 산노마루 쇼조칸 소장품으로 분류된다.

* 또한 아마쿠사[天草] 출신인 오야노 가문은 분로쿠 · 게이쵸[文祿 · 慶長] 시기(1593~1615)에 히고 남부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 가세하였고, 그 뒤 서군의 고니시 가문이 세키가하라(關ヶ原) 싸움에서 멸망하자, 히고 일국(一國)을 영유하게 된 가토(加藤) 가문에 소속되었다(다마나 군玉名郡시모나가타 무라下長田村에 영지를 가지게 되었다). 가토 가문이 교체된 뒤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가신이 되었고, 다마나 군에 거점을 가지게 되었다.

작품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前卷(上卷)은 세로 40.3cm×가로 2450.6cm, 後卷(下卷)은 세로 40.2cm×가로 2111.8cm 이다. 순서 등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보통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전권은 詞一에서 詞九까지, 繪一에서 繪十까지이고, 후권은 詞十에서 詞十六까지, 繪十一에서 繪二十一까지가 배열되었다고 생각한다. 실로 장대한 두루마리 그림이다. 다만 과거에는 3 卷으로 구성되었다고도 하고, 또한 전후가 뒤바뀌거나 착간 · 산삭이 있다던지, 종이의 질과 크기가 제각각이라던지, 나중에 상술하겠지만 일부 설명문과 그림이 별도로 배치된 적이 있었다(오야노 가문에 숨겨져 있었음)는 점 등 제작 당시의 상태를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사료 연구에 관한 축적도 방대하다. 예를 들면 적어도 같은 작품이 두 개(정본 · 부분) 제작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는데, 나름대로 유력한 설이지만 과연 두 개만 제작되었을까? 세 개가 제작되었다는 설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본 그림에 대한 연구의 시각과 과제

이러한 그림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繪(회화부분)와 詞(설명문[詞書 ぎ]; 문장부분)으로 구성되는 작품 전체의 세밀한 부분은 물론, 보통 권말에 놓이는 발문(제작의도를 적은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작품 전체를 통해 세밀한 부분에 주목하는 시점 · 방법이고 후자는 작품 전체를 대상화하여 평가하는 거시적인 시점과 관련된다. 회권[繪卷] 연구는 전자와 후자의 치밀한 검토와 양자 간의 왕복 · 접합에 의해 진전되어 간다는 사실은 덧붙일 필요도 없겠다. 다만, 착간과 개찬(改竄), 보필 · 가필 등이 많은 본 작품에 한해서 말하자면, 우선 후자의 전체적 파악을 우선하고 그 뒤에 전자의 세밀한 부분의 개변을 해석해 나가는 순서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본 작품이 현재 상태가 된 과정의 해명과 관계되므로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냄으로써 제작 당시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밀한 부분의 분석을 통해 본래 그림의 모습에 다가가는, 혹은 그림의 ‘실증성’을 높이는 연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詞二의 착간 분석을 중심으로 다케자키 스에나가 등의 진군 경로를 해명한 호리모토 가즈시게(堀本一繁) 씨의 연구 등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 작품에는 발문에 해당하는 詞가 두 개나 남아 있다(순서대로 A [詞十五] · B [詞十六] 로 편의적으로 부르겠다). ‘에이닌永仁元年二月九日’ [1293 년] 라는 같은 날짜이면서도 각각 다른 필치로 전혀 다른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A에서는 ‘[아다치安達] 야스모리(泰盛)의 일’이라고 적으면서 야스모리로부터 ‘곧바로 하달문서[御下文]를 발급하여 어마(御馬)를 내린 것은 다만 스에나가 한명 뿐임’이라고 하였듯이 고케닌 다케자키 스에나가(가이토고海東郷 지토시키地頭職를 배수(拜受)받을 적에) 가마쿠라에서 신세를 진 아다치 야스모리의 진혼을 이야기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B에서는 스에나가 귀의했다고 간주되는 고사샤(甲佐社, 다이묘진大明神)에 감사하여 바야흐로 가이토고 지토시키에 임명되었음을 감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사의 다이묘진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샤단[社壇] 동쪽(東) 빛나무가지에 앉았는데, 이 동쪽이란 관동(關東)을 가리키니, 장래 지토시키를 획득하는 ‘가이토(海東)’와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억지스럽지만— 스에나가 관동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였고, 실행에 옮겨서 성공했다라는 줄거리이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이닌永仁元年二月九日’이라는 날짜 표기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올바르게 표기한다면 ‘쇼오正応六年二月九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오기노 미나히코萩野三七彦 설). 에이닌 개원(改元)은 쇼오 6년 8월 5일로, 중국·한국과 같이 즉위년[零年]의 개념¹이 없는 중세 일본에서는 같은 해(1293년) 8월 5일까지는 쇼오 연간(1288~1292), 그 이후는 에이닌 원년으로 적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 ‘에이닌永仁元年二月九日’이라는 표기는 쇼오 6년 2월 당시 사람들에게 알 수도 없는 연호표기, 즉 ‘미래 연호’인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날짜 기재는 에이닌 개원 이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이 작품 자체가 분에이(文永)·고안의 전쟁 시기(역자주 : 몽골이 두차례 침입해 온 시기, 1274·81년)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지난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그 뿐만 아니라 에이닌원년에서 더 후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본 그림의 제작의도를 간파할 수 없어서 많은 연구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그런데 최근에 발문 A·B 모두 그림과는 별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미야 쓰기오宮次男 설)가 다시금 강조되었다(핫토리 히데오 설). 핫토리 씨는 A에 대해서 말하자면 스에나가 그 후에 아다치 야스모리 과와 인연을 끊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때문에 이와토 합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B에서는 그림 안에는 구마노 센다쓰(熊野先達, 구마노 신사계통의 슈겐자修験者·야마부시山伏)가 등장하는데도 (발문에는)아소(阿蘇)신사계의 고사샤(다이묘진)가 나타나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대에 추가한 부분에 불과한데(또한 핫토리 설에 따르면 히고의 구마노 신앙의 거점은 다마나玉名에 있고, 다마나 주변에 위치하는 다케자키竹崎야 말로 스에나가의 성씨名字가 유래한 지역이라고 한다), 애초에 가토고의 지토시키를 스에나가 얻었다는 말은 그림 자체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니, 곧 그림과 발문 B는 대응관계가 없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이다.

다만 A의 필적은 한자에 독음을 표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서체, 글자체를 보더라도, 뒤에서

¹역자 주 : 한국은 삼국시대 이래로 즉위한 해를 1년으로 친다.

문제가 되는 詞九—내용은 詞二와 詞七과 대부분 겹친다—와 같은 필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미야 쓰기오 씨 · 고마쓰 시게미 小松茂美 씨 · 오타 아야 씨 등). 물론 거기에는 스에나가가 아다치 야스모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그 은혜[恩顧]를 강조하는 논리전개이다. (다만 詞七과 詞九의 필적도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문 A 를 근거로 스에나가가 반 야스모리 파의 입장을 취하였다는 핫토리 설은 현재 그림의 전체구성에서 보았을 때 수미일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 덧붙여 이시이 스스무 씨는 오사혼입(誤寫混入)을 상정했기 때문일까(고마쓰 시게미 씨도 別本에서 혼입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詞九를 『中世政治社會思想』上卷에 수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시이 설에서는 詞十이 ‘九’번이 되어서 궁내청본에 의거한 설명문의 번호(통례 · 통설)과 한 번호씩 어긋나게 되었다. 곧 발문 A(궁내청본의 詞十五)는 이시이 번각(翻刻)에서는 ‘一四’번이 되고 발문 B(궁내청본의 詞十六)는 이시이 설에서는 ‘一五’번이 된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3 명—아다치 야스모리 · 아다치 모리무네(安達盛宗) · 쇼니 小弐(무토武藤)가게스케景資— 은 8 代執權 호쥬 도키무네(北條時宗) · 9 代執權 사다토키(貞時)의 미우치비토(御内人) 필두인 다이라노 요리쓰나(平頼綱)의 모략에 의해 멸족되었다(1285 년(고안 8 년), 상월(霜月) 소동). 특히 야스모리 파의 쇼니 가게스케는 후쿠오카(福岡) 현에서 떨어진 이와토(岩門) 합전(1284 년, 고안 7 년)에서 당시 후계자 계승[家督]으로 다투고 있던 형 쇼니 쓰네스케(小弐経資)에게 멸망당하고 만다(쓰네스케는 필연적으로 반 야스모리 파인 헤이젠문平禪門 측에 붙는다). 이 이와토 합전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 등 히고의 고케닌 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는 사료상 명료하지 않는데 통설로는 그들 히고 세력은 합전에 참가할 여유가 없었고 야스모리 파의 쇼니 가게스케를 돕지도 못하여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 씨 · 이시이 스스무 씨). 이에 대하여 핫토리 히데오 씨는 스에나가가 당시 이미 반 야스모리 파로 전향하였기 때문에 합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의견도 명확한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몽고습래회사」 발문 A·B 의 분석

(1) 발문 A 와 詞七 · 詞二 · 繪二—오야노 가문의 내력[由緒]설

여기서 본 보고에서는 에도시대 분세이(文政, 1818~1830) 말기 무렵까지 원본의 詞二와 繪二가 오야노 가문에 숨겨져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호리코토 가즈시게 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詞二에서는 당일의 지휘관[日の大將]인 쇼니 가게스케가 등장한다. 가게스케의 면전을 그림의 주인공인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지나가면서 선봉 돌격[先懸け]을 끝내면 가마쿠라 장군에게 보고하라고 가게스케에게 의뢰한다(가게스케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그림이 아래에 제시한 繪二이다. 도판 오른쪽에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쇼니 가게스케인데 詞二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원래 그림의 전반부에는 아마도 다케자키 스에나가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어느 모사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図削除(「몽고습래회사」前卷 · 繪二 / 오타 아야 『蒙古襲來繪詞』에서 轉載)

문제는 지금에는 확인할 수 없는 스에나가의 모습이다. 詞二에 따르면 선봉 돌격을 너무나 서두른 나머지, 하마(下馬)의 예조차 취하지 않고 가게스케의 면전을 지나친 사실을 적고 있다. 아마도 그림 2의 결손부분(위에 제시한 도판의 오른쪽)에는 말을 탄 스에나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도판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듯이 이러한 스에나가의 무례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그림 2의 전반부를 잘라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무례한 태도를 설명하는 詞二가 숨겨진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무가(武家)의 질서와 예제에 엄격한 에도시대에는 이러한 무례한 장면이 있는 그림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었지 않았을까?

* 특히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은 일은 무가의 예법에 크게 저촉하였을 가능성, 혹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시대의 무가의 교양서이기도 한 가마쿠라 막부의 正史 『아즈마가가미吾妻鏡』 지쇼(治承) 5년(1181) 6월 19일조에는 요리토모(頼朝) 휘하의 가즈사노스케 히로쓰네(上総介広常)가 요리토모에 대해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은 일이 문제가 되었다. ‘주군’ 요리토모에 대한 히로쓰네의 반항적인 자세는 『아즈마가가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아마도 히로쓰네를 반역자로 간주하기 위한 ‘복선’을 깔았을 것이다. 그 뒤 히로쓰네는 이른바 ‘동국(東國) 독립론자’로서 요리토모에게 숙청당한다(고치 쇼스케河内祥輔 설). 또한 하마의 예에 관한 중국, 일본 간의 율령 계승 문제에 관해서는 오스미 기요하루(大隅清陽) 씨의 연구가 자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詞二의 내용과 詞七·詞九가 거의 중복됨—겨우 5騎밖에 거느리지 않은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당일의 지휘관’ 쇼니 가게스케에게 자신이 선봉 돌격을 하겠다는 기개를 어필함—에도 불구하고 후자인 詞七·詞九에는 스에나가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언급이 일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추리하기 위해서도 설명문의 내용에 주목해보자. 그러면 詞二는 앞부분의 결락이 없는데, 하카타(博多)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당일의 지휘관’ 쇼니 가게스케에게 선봉 돌격의 시도를 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전쟁 현장·당시의 기록이다.

이에 비해 詞七·詞九에서는 1275년(겐지建治 원년)에 스에나가가 가마쿠라에 도착하고 나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겨우 은쇼부교(恩賞奉行) 아다치 야스모리의 면전에서 소송[庭中]했을 때의 발언에서부터 기술이 시작된다. 과거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주장할 때, 이 ‘당일의 지휘관’ 云云의 부분이 충실하게 재현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소송 속의 발언에서 스에나가가 쇼니 가게스케에게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일체 없다. 아무리 선봉 돌격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상술한 대로 본래는 무가(武家)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 詞九(발문 A와 같은 필체)의 종이 第43紙의 오른쪽 끝에는 소나무 가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부분 결락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종이[料紙]에 걸쳐서 그림이 그려졌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오쿠라 유지大倉隆二 씨·사토 테쓰타로 씨). 다만 안타깝게도 詞九는 뒷부분이 결락되어서 그 전체 문장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이 발문 A와 詞九의 존재로 인해 적어도 「몽고습래회사」가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반복하지만 詞二 및 이에 대응하는 繪二가 오야노 가문에 숨겨진 사실이 무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봉 돌격’으로 행군질서를 어지럽힌 ‘용감한 스에나가’였지만, —다케자키 스에나가는 쇼니 가게스케로부터 하카타 오키노하마(息浜)에서 ‘일체히 공격할 것’이라고 일단 못박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의 군대가 적기 때문에 ‘선봉 돌격’으로 군공을 세우고 싶다고

자청해서 이를 허락받은 경위가 있으니(詞二・詞七・詞九) — 상관인 ‘당일의 지휘관’ 가게스케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할 정도로 교양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즐거리로 바꾸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이 은닉·산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발문 A —아다치 야스모리를 향한 의사표명— 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 詞九 —쇼니 가게스케에게 하마의 예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 와 같은 필적인 점이 결정적이다. 즉 오야노 가문은 다케자키 스에나가를 일관되게 아다치 야스모리-쇼니 가게스케일파로 표현하려고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도 자기 집안의 내력 작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오야노 가문은 자기 집안의 내력을 다자이 다이켄(大宰大監) [쇼] 에서 구하였는데 이는 다자이 쇼니小弐 [스케], 즉 무토 가문의 차석[次位]·부하에 해당한다. 요컨대 근세의 오야노 가문은 자신의 가문과 쇼니 씨(무토 가문)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각색·날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쇼니 가게스케에게 은혜를 입은 다케자키 스에나가를 이른바 매개체로서 발견하고 이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야노 다네야스(大矢野種保) 등 형제 3명이 1281년 제2차 대몽골전쟁(고안의 역)의 해전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함께 행동한 것 처럼 현 상태의 그림에서 표현된 점(後卷・繪十六—‘오야노 兄弟三人 / 種保’의 표현이 분명하게 후대의 필적으로 적혀있다)은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오야노 집안 선조가 싸움터에서 생사를 같이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엮을 것이다. 이 스에나가는 고안의 역을 다루는 後卷에서는 아다치 무네모리(安達宗盛, 야스모리의 차남, 히고 슈고다이肥後守護代) 군대와 긴밀한 관계가 묘사되어 있는 점도 부연해 두겠다.

* 다만 왜 가문을 이어받고 이와토 합전에서 승리한 쇼니 쓰네스케 측에 오야노 가문은 가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밝혀냈듯이 이와토 합전 후에 치쿠고(筑後)·부젠(豊前)·히젠(肥前)·히고(肥後)의 슈고(守護)가 호조 도쿠소(北条得宗) 가문에게 빼앗겨버린, 즉 어부지리를 취하게 해버린 스네스케의 실책, 더하여 후의 헤이젠문平禪門의 난(1293년, 쇼오 6년=에이닌 원년)을 거쳐 다음 해에는 옛 야스모리 파의 복권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클 것이다. 또한 겐페이(源平) 교체사관이 강한 에도시대에서 본다면 헤이씨(平氏)=호조 가문의 지배에 저항한 기쿠치(菊地) 씨·오토모(大友) 씨·쇼니 씨는 영웅적인 존재로 거기에 자신의 가문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역사’야말로 중요하다. 오야노 가문에게 쇼니 씨와 기쿠치 씨의 밀접한 관계가 묘사된 「다케자키 스에나가 그림」이 유용하게 보였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또한 반복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호소카와 번(히고·구마모토)의 번사(藩士)가 된 오야노 가문에 있어서 히고의 고케닌(御家人)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와 생사를 함께 하였다는 사실 —물론 상술하였듯이 실제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다— 은 히고에서 살아갈 때 정통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야노 가문보다 먼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나와 아키오키(名和顯興)가 고사샤의 창고[神庫]에서 본 작품을 횡령하였다 —혹은 오야노 가문 사람이 빼앗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라는 설(사쿠라이 기요카桜井清香 씨)도 전혀 근거없는 공론으로 제외시켜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2) 발문 B 과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置文]—가마쿠라 후기 규슈의 덕정(德政)상황

그렇다면 발문 A 와 詞九는 에도시대의 위작 및 별본에서 혼입된 것으로 그 장본인은 오야노 가문이 되는 것일까? 그러한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발문 B 에도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케자키 스에나가 자신이 남긴 관련 문서는 도후쿠지(塔福寺) 문서 등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그가 소유지[知行地]로서 아다치 야스모리·무네모리(宗盛)에게 승인받은 가이토고의 권익[所職] 일부를 씨사(氏寺)인 도후쿠지와 가이토고(海頭郷) 신사(가이토샤, 海東社) 등에 기부[寄進]하였음을 나타내는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置文]」(置文 : 유언장 겸 기증서) 이다(1293 년(쇼오 6 년)원작 [제 1 판], 1314 년(쇼와正和 3 년)자필개정판 [제 2 판]; 『中世政治社會思想』上卷에도 게재). 그런데 기부한 곳의 지명·신사명(社名)의 표기 방법을 보면 위화감이 있다. 왜냐하면 도후쿠지 문서 등을 보면, 모두 가이토고(海頭郷) 신사라고 기록되어 ‘그림’발문 B 에 보이는 가이토고(海東郷)라는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본인 이름 표기가 자주 바뀌는 중세에서 이는 작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꿈 속의 신탁으로 인해 관동(關東, 가마쿠라 막부·온쇼가타恩賞方)으로 가서 가이토고(海東郷) 지도시킴을 받았음을 기념하여 이 그림을 작성(발문 B)하였다면, 스에나가 자신이 가이토(海東)라는 표기를 죽을 때까지 집착한 것이 된다. 요컨대 ‘가이토(海頭)’(도후쿠지 문서)를 가이토(海東)’(‘그림’발문 B)로 표기한 사실 자체가 후자(발문 B)가 스에나가의 의지와 동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발문 B 의 맨 뒤에는 ‘고사 다이묘진의 신덕(神德)을 증명하기 위해 이 [몽고습래회사를 가리킴—이시이 스스무 설] 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현존하는 그림의 설명문과 화면 등에서는 고사 다이묘진에 대해 다케자키 스에나가 감사해 했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없는 점에도 이시이 스스무 씨는 주의를 환기시킨다(그렇지만 그렇게 배려한 흔적은 없다). 또한 가이토코는 고사샤(히고니노미야2 의 宮)의 신령(神領)으로 여기서 스에나가 영지를 기부한 가이토샤(현재의 가이토 아소신사)란 가이토고에 아마도 고사샤(아소 말사末社)를 개재하여 분치[勸請]된 아소 말사의 하나였을 것이다(언제 분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스에나가 고사샤의 신덕에 감응하여 분치하였다면 스에나가 가이토고에 부임한 1276 년(겐지 2 년)정월 6 일 이후가 될 것이다). 또한 도후쿠지는 이 가이토고 신사 가까이에 있고 새로 건립한 진구지(1293 년(쇼오 6 년=에이닌 원년) 무렵에 건립?)에 도후쿠지 승려를 들여보내는 등 다케자키 집안의 가이토샤·가이토고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발문 A·B 모두 ‘에이닌永仁 元年二月九日’라고 적은 1293 년은 상술한 대로 8 월까지 ‘쇼오 6 년’이었다. 그러나 上記한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도후쿠지 문서 [제 2 판]·아키오카(秋岡) 가문 문서 [제 1 판])의 날짜는 ‘쇼오正応六年正月廿三日’이듯이 연호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점이다. 따라서 ‘유언장’이 동시대 사료임에 비해 발문 A·B 는 모두 후세의 작품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술한 발문 A —근세 초두에 오야노 가문이 써 넣었을까?— 정도는 아니지만 이 발문 B 도 역시 부자연스러움을 씻어 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시대의 정치·경제·종교 정세를 감안하면, 에도시대의 작품으로 간주할 필연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다케자키 집안에 의한 가이토고의 정치적·종교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1276 년(스에나가의 가이토고 부임)에서 1293 년(가이토샤에 진구지神宮寺를 건립, 또는 자신의 영지를 기부)까지의 사이에서 서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지배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가이토 아소샤·신설한 진구지에 기부가 약속되어 있었다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1293 년(쇼오 6 년·에이닌 원년) 4 월에 헤이젠문의 난이 일어나서 구 아다치 야스모리 파가 복권되었다. 아다치 야스모리는 이른바 ‘고안(弘安) 덕정德政’(1284 년, 고안 7 년 6 월)을 주도하여,

벳쇼덴쇼료 (別相傳所領, 공가公家와 무가武家 소유로 돌아간 원래의 신령(神領)) 을 부정하고 본래의 신령으로 되돌린다(진료코교神領興行)는 급진적인 시책이 채용되었다(이노우에 사토시井上聰 씨). 실제로는 벳쇼덴을 부정하는 덕정 정책은 이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 1297년(에이닌 5년)‘에이닌永仁 덕정령德政令’과 1312년(쇼와正和 원년)‘쇼와의 덕정령’을 보더라도 신용(神用)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 고케닌(地頭御家人)과 게스묘슈(下司名主)의 배제는 공통되어 고케닌 다케자키 씨로서도 이러한 정책을 경시할 수 없었을 터이다. 게다가 옛 야스모리 파의 복권과 호쥬 사다토키(北条貞時)의 전제방침 —1293년(에이닌 원년), 재판의 최종적 판단을 도쿠소(得宗) 호쥬 사다토키에게 집중시키는 ‘집주(執奏)’제도를 실시하고, 다음 해(1294)에는 사다토키의 재정(裁定)을 뒤집으려고 하는 월소(越訴, 재청 요청)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과 후시미(伏見)천황의 친정(親政)지향 —기록소 정중(記録所庭中)을 정비하고, 잡소(雜訴, 토지·영지[所領]관계의 재판)를 달마다 6번이나 개최한다는 규정을 만들— 이 서서히 명료해져 가면서 다케자키 씨로서도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본래 고사샤(히고니노미야, 아소 말사)의 신령(神領)이었던 가이토고가 부정되어, 영지·지도시킴을 고사샤로 회수해 버릴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취한 대책이 영지의 일부를 슬하의 가이토샤(아소 말사)에 기부하거나 진구지를 창설하거나 불물(佛物)·신물(神物)을 견지하는 ‘유언장’을 짓는 방책이지 않았을까? 또한 본주(本主)인 고사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집안(다케자키 가문)과 고사샤 간의 깊은 내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인연’을 이야기하기 위해 발문 B가 작성되었다— 라는 가능성은 없었겠는가?

* 이러한 내정적 동향과 밀접하게 얽힌 대외적 위협의 고조도 이 시기에 존재하였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가와조에 쇼지 씨). 1292년 (日本 쇼오 5년·元至元 29년) 7월에는 원나라 연문남(燕文楠)의 글이 가마쿠라에 도착하였고(『鎌倉年代記』), 같은 해에는 도합 3차례의 고려 국서 —원 조정의 문서를 중개— 가 김유성(金有聲) 등에 의해, 10월에 다자이후(大宰府)에 전해졌다(『金澤文庫古文書』·『高麗史』 등). 탐라(耽羅, 제주도)에 표착한 일본인 상인을 송환하는 동시에, 중재하는 입장인 고려의 김유성에 의해 국서의 표현은 부드럽게 고쳐졌지만, 세 차례 일본이 원나라에 귀순하도록 재촉하는 내용이었다(우에마쓰 다다시植松正 씨). 이러한 원 - 고려측의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측은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어 같은 달에는 제국諸國의 고쿠분지(國分寺)·이치노미야(一宮) 등에 외국[異國]의 항복을 기원하였다(『東寺百合文書』). 11월에는 후에 친제이탄다이(鎮西探題)가 되는국방지휘관[大將]의 선정에도 착수하였다(『신겐소쥬(親玄僧正)日記』). 친제이 탄다이는 다음해 3월에 호쥬 가네토키(北条兼時)·도키이에(時家)를 임명해서 발족하였고(무라이 쇼스케 설) 4월에는 전술한 대로 헤이젠몬의 난이 일어나서 옛 야스모리 파가 복권하고, 6월에는 후시미 천황이 친정을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발문 B에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1293년(쇼오 6년) [제 1 판] ~ 1314년(쇼와正和 3년) [제 2 판]의 다케자키 스에나가 유언장(도후쿠지 문서 등)과 이 발문 B가 전혀 관계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친제이(鎮西, 규슈)를 대표하는 우사(宇佐) 신궁(하치만구八幡宮)의 식년 천궁(式年遷宮, 1289년(쇼오 2년))이 늦어지고 천궁이 끝난지 불과 2년 만에미로쿠지(弥勒寺)와 함께 소실된 사건(1309년, 엔케이延慶 2년)과 이를 전후한 규슈의 게고자키 구(宮崎宮)·가시이 구(香椎宮)의 소실, 고후카쿠사 상황(後深草上皇)·가메야마(龜山) 상황·고니쥬(後二条) 천황의 사망, 가마쿠라

대지진, 역병의 유행, 중국 경원(慶元)지역에서 일어난 일본상인 소동사건(에노모토 와타루榎本涉 씨), 도쿠소(得宗) 사다토키의 죽음 등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덕정의 기운이 치솟았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때문에 ‘쇼와의 덕정령’이 발포된다. 반복이 되지만 이러한 정세 속에서 다케자키 스에나가 자신의 영지 보전을 꾀하는 수단의 하나가 자신과 고사샤·가이토고 사이의 유대를 어필하는 발문 B 의 작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문 B 를 붙인 이상, 「몽고습래회사」 중 하나(원본?)는 역시 고사샤에 기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이상과 같은 추론이 다소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면 발문 B 는 쇼와 연간(1312~1317)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가이토샤(海頭社)(도후쿠지 문서)와 가이토고(海東郷)(‘그림’발문 B)라는 한자표기의 차이는 시기에 따른 차이이기 보다는 어필하려는 대상(수신인·독자)의 차이,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정치자세를 나타내는 방법의 차이로 볼 수 있겠다.

맺으며

이상의 논의를 약간의 보충을 포함하여 정리하겠다.

우선 ‘그림’발문 A 에 대하여, -아마도 오야노 가문이 원하는 내용이 실린 발문 A 는 근세에 들어와서 히고·구마모토 번사로서 살아가게 된 오야노 가문이 작성(날조)한 것은 아닐까? 히고 기쿠치(菊池) 씨의 존재가 그림 속에서 강조되었음은 원래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본 그림 모두에 적힌 ‘분고노쿠니豊後國 슈고守護 오토모大友 / 효고노카미 요리야스兵庫守頼泰之手 / 軍兵’의 그림 속 주석은 설명문과도 대응하는 부분이 없어서 의심스럽다. 쇼니·기쿠치·오토모라는 친제이(鎭西) 삼대세력과의 관계, 특히 기쿠치·오토모와아소 간의 관계를 어필하기 위해서 가필한 것은 아닐까? 오토모 씨가 아소샤 내부와 명료하게 관계를 가진 시점은 16 세기 전국시대로 이또한 그림 속의 주기(註記)가 가마쿠라·남북조 시기보다도 훨씬 늦추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발문 B 에 대하여,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가이토고 지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발문 B 는 고안·에이닌·쇼와의 덕정 상황 속에서, 스에나가 자신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즉 벅쇼텐 부정과 지코 고케닌 배제를 취지로 하는 덕정령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사샤와 맺은 긴밀한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기초한 것이라고 추찰된다.

또한 미야 쓰기오 씨와 핫토리 히데오 씨의 결론처럼, 본래 발문 A·B 가 그림 자체와는 다른 물건이었다는 관점은 어느 정도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이시이 스스무 씨가 논한 바와 같이, 전혀 그림과 설명문이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이시이 스스무 설). 달리 말하자면 그림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문 A·B 의 의도야말로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발문 A·B 각각에 들어맞도록 그림이 개편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발문은 결코 ‘관계없다’는 한 마디로는 정리될 수 없다. 한 번의 작업으로 「몽고습래회사」의 원래 형태로 되돌리기는 매우 곤란한 이상,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고찰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시이 설과 같이 다케자키 스에나가 아다치 야스모리·쇼니가게스케 등을추모하기 위해 「몽고습래회사」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다. 본 보고에서 논한 내용은 이후의 필적으로 보이는 발문 A·B 의 역사적 성격에 불과한데, 지금은 알 수 없는 「몽고습래회사」의 원래 형태·원본 제작 당시 다케자키 스에나가의 의도는 아직도 베일의 저 편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몽고습래회사」를 더욱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발문 A(근세 초두?)와 발문 B(쇼와正和 연간 1312~1317?)의 역사적 특징을 고려하면서 그 때 그 때 이루어졌을 개작·가필 등을 분별해 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물론 발문 A·B 각각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필과 개찬, 산삭 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그림’의 현재 상태 자체의 분석을 통해 발문 A 와 B 의 평가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생길 것이다. 앞으로는 보고자도 미력을 다하여 계속해서 본 ‘그림’의 수수께끼와 그림의 해독에 도전할 것을 맹세한다.

【주요 인용·참고문헌】

- 石井 進 1972「竹崎季長絵詞」(詞書き翻刻・解説)『中世政治社会思想』(上)岩波書店 ※新装版 1994
 —————1991『中世史を考える——社会論・史料論・都市論』校倉書房
 —————2000『鎌倉びとの声を聞く』NHK出版(日本放送出版協会)
 井上 聡 2013「神領興行法再考」『東京大学日本史学研究室紀要別冊 中世政治社会論叢』同研究室
 植松 正 2015「第二次日本遠征後の元・麗・日關係外交文書について」『東方学報』
 榎本 涉 2007『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九～一四世紀』吉川弘文館
 大倉隆二 2007『「蒙古襲来絵詞」を読む』海鳥社
 大隅清陽 2011『律令官制と礼秩序の研究』吉川弘文館
 太田 彩 2000『絵巻＝蒙古襲来絵詞』(日本の美術 414)至文堂
 荻野三七彦 1932「蒙古襲来に就ての疑と其解釈」『歴史地理』59 卷 2 号
 川添昭二 1977『蒙古襲来研究史論』雄山閣出版
 工藤敬一 1974「竹崎季長おぼえがき」『日本歴史』317 号
 河内祥輔 2013『頼朝がひらいた中世——鎌倉幕府はこうして誕生した』(ちくま学芸文庫)筑摩書房
 小松茂美 1988『蒙古襲来絵詞』(日本の絵巻 13)中央公論社 ※再版 1990
 佐伯弘次 2016「蒙古襲来以後の日本の対高麗關係」『史淵』153 輯
 桜井清香 1967『元寇と季長絵詞』徳川美術館
 佐藤鉄太郎 2005『蒙古襲来絵詞と竹崎季長の研究』錦正社
 —————2016「元寇の実相：服部英雄著『蒙古襲来』の実証的批判」『軍事史学』52 卷 2 号
 中村一紀 1975「蒙古襲来絵詞について」『熊本県文化財調査報告書(17)竹崎城』熊本県教育委員会
 服部英雄 2014『蒙古襲来』山川出版社
 宮 次男 1964「蒙古襲来絵詞について」『日本絵巻物全集(9)平治物語絵巻・蒙古襲来絵詞』角川書店
 村井章介 1988『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2001『北条時宗と蒙古襲来：時代・世界・個人を読む』(NHKブックス)日本放送出版協会
 —————2006『中世の国家と在地社会』校倉書房
 堀本一繁 1998「「蒙古襲来絵詞」の現状成立過程について」『福岡市博物館研究紀要』8 号
 —————2012『「蒙古襲来絵詞」の復原にみる竹崎季長の移動経路』『交通史研究』78 号